

나고야 어린이 응원위원회부터의 안내

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. 방학 동안의 추억을 마음에 간직하고, 학교생활의 기대가 부푼 어린이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

한편, 오랜 방학후에는 불안이나 고민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.

가정에서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자녀와 지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걱정되는 것이 있으시다면, 편하게 학교 선생님이나 스쿨 카운셀러 등에게 상담해 주십시오.

(예)

-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던 것에 대해 흥미를 잃어 버렸다
- 불안한 모습이나 짜증내는 언동이 늘고 침착하지 못한다
- 두통이나 복통 등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
- 학교나 친구의 이야기를 피한다 등